

# 영어 공용어화 주장의 허구성

채희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 1. 도입

요즘 우리 사회는 이른바 “영어 공용(어)화”와 “영어 모국어화”의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는 복거일(1998, 2000)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우선 제2 공용어로 채택하고 궁극적으로는 모국어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sup>1)</sup> 이런 주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 가정은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우리 모두 영어를 모국어처럼 쉽게 배우고 그에 따라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그 만큼 강화된다는 것이다. 즉,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작은” 노력만 하면 괄목할 만한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엄청난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접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늦어도 중학교 학생 시절부터 직장에서까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수 없이 많은 시간

1) 물론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 모국어화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영어 모국어화는 아예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채희락 2000 참조), 이 글에서는 영어 공용어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을 쏟아 부어 노력을 기울여 왔었지만 정작 영어 원어민을 만나면 겁부터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는 묘안이 있다니 혹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영어 공용화론에 동조하는 의견도 종종 제시되고 있으며 (고종석 1999, 김경일 2001 등),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러 측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sup>2)</sup> 얼핏 생각해서는 이 주장에 호감이 느껴질지라도 조금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류 투성이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절에서 우리는 이 주장이 “공용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왔으며 그 동기와 전제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내세우고 있는 “근거”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대비해 우리는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3절에서는 이런 경제적 효율성, 즉 경제성의 문제를 짚어 보려고 한다. 우리는 경제성이란 측면에만 한정시켜서 보더라도 영어 공용어화는 엄청난 고통과 비용 및 시간이 들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 효과는 미미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입을 피해는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함으로써 영어 실력이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어만 쓰고 한국어를 못 쓰게 해야 한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영어가 모국어가 되는 단계까지는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국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영어만 쓰게 하는 것

2) 각종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면 영어 공용어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각 학문 분야에서 언어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는 반대론자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은 과거의 식민 시대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sup>3)</sup> 이처럼 이룰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도달할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신기루를 쫓아 헤매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기루를 잡기 위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말을 못 쓰게 할 정도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 끝에 (우리말은 잊어버리고) 영어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때는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영어가 계속 세계 공용어로서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기계 번역 기술의 발달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모국어 하나만 알면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에 불편이 없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어 공용화라는 신기루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어 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sup>4)</sup> 이 점에 대해서는 4절 결론 부분에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 2. 영어 공용어론의 세 문제점

영어 공용어론의 요점은, 영어는 이미 국제어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해야 하며,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거일(2000)의 영어 공용화/모국어화 주장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면 크게 다음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정보 전달 수단인 언어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커지며 영어는 이미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아

3)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등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식민 시대를 겪었으며 식민 통치가 끝나도 전 국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민족어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할 수밖에 없었다.

4)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권을 사 모아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 허황된 것이다. 복권은 비록 확률이 낮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기루는 잡을 수가 없다.

주 많다. 둘째로,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만 국제 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국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만<sup>5)</sup> 둘째 부분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크다. 여기에 깔려 있는 기본 가정은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국민들의 영어 실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다. 영어 공용어화 논리의 허구성은 이 전제조차 잘못되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영어 공용화를 위한 비용은 엄청나게 들겠지만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공용어화 주장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참고문헌> 참조 : 고종석(1999), 김경일(2001), 복거일(1998, 2000) 제외).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 공용어론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할 사항은, 영어 공용어론을 주창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 특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공용(共用)”과 “공용(公用)”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좀 더 넓게 쓰자는 단순한 의도로 공용어론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의 영어는 공용어(共用語)라고는 할 수 있을지만 정한 국가의 공식(official) 언어인 공용어(公用語)와는 거리가 멀다.<sup>6)</sup> 이미 영어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공용어(共用語)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어떤 개념의 공용어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영어를 공용어(共用語)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특별한 부담 없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만 고안하면 된다. 즉, 효율적인 영어교육이란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가 공용어(公用語)가 되어야 한다면 국

5) 정대현(2001 : 48-49)에서는 복거일 주장의 첫째 부분에서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6) “공용어(共用語)”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김세중 2001),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에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언어로 인한 불편이 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따져 보면 그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복거일과 같은 영어 공용어론 “전문가”들은 영어를 공용어(公用語)로 만들자는 주장이지만 일반인들이 영어 공용어론에 동조하는 것은 공용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7)</sup>

둘째로,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공용어론은 그 발생 동기부터 잘못되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언어를 공용어(公用語)로 채택해야 될지 아닐지의 논쟁은 다언어 국가에서나 필요한 논쟁이다(한학성 2000, 김세중 2001). 한 국가에서 두 개 이상의 여러 지역이 나누어져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떤 지역의 언어를 국가의 공용어로 지정해야 될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전 국민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공용어화 주장은 논쟁의 발생 자체가 비정상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영어 공용어화 논쟁은 우리 사회에 언어 문제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영어 능통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영어 실력 향상의 방편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두 개 이상의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된 국가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은 한 언어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어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진다.

셋째로, 영어 공용어론의 큰 논리적 결함은 그 주장의 기본 가정이 되

---

7) 영어 공용화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박병수(2001 : 22)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용화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정 전문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를 국어만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능력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영어 공용어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는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 전제에는 두 단계의 논리적 비약이 숨어 있다. 첫째 비약은 영어가 공용어로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국어처럼 영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어 실력이 자동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복거일(2000 11월)의 다음 주장에 잘 드러나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으면, 우리 시민들은 영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환경에서 영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둘째의 논리적 비약은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 실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영어 공용어론의 가장 큰 약점인 첫째 논리적 비약에 대해 살펴보자. 영어 공용어화가 왜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는지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알 수 있다(채희락 2000 : 162-3).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신문, 방송 등 공공 매체를 통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실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 피상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어 습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텔레비전 방송을 듣게 했지만 그 방송 언어를 전혀 습득할 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미 영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단지 영어 자료가 부족하거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영자 신문과 잡지를 볼 수 있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및 기타 멀티미디어 영어 자료를 얼마든지 주위에서 접할 수 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종 문어/구어체의 영어 자료가 무한히 널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거의 모든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는 미국에 어학 연수를 가더라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 실력은 별로 늘지 않는다.

단순히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미국에 살더라도 한인타운에 살면 동포 1세대들이 영어를 거의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들 수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주위에는 영어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어 정보량의 다소에 따라 영어 실력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개개인의 학습 동기와 노력에 따라 실력에 차이가 나게 된다.

다음으로, 둘째의 논리적 비약, 즉 영어 실력이 늘어나면 바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자(채희락 2000 : 166-7). 이 가정도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영어 실력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교나 국제 통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어 능력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분야에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지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전문 지식은 충분하지만 영어 실력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비영어권 국가와의 협상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중국 등과의 협상에서도 손해만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박병수 2001 : 24-5). 다시 말하면, 영어 실력은 경제 발전의 충분조건도 아니며 필요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 내지 공용어로 쓰고 있는 곳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있으며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도 경제 대국이 있다.

외교나 국제 통상 분야에서의 협상에서 영어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 국가의 제도와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손해이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서

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모든 국민을 영어 모국어 화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네티즌이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다음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장악한 이유는 거기에 영어를 써서가 아니라 일본인 자신만의 개성을 강하게 살리면서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하이텔 mebe).

우리는 위에서 영어 공용어론의 셋째 문제로 그 주장의 전제에 두 단계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어 공용어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개별 논점들도 한결 같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거일(2000)은 영어 공용어화/모국어화를 해야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민족어는 몇 세대 내에 더 이상 일상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박물관 언어”가 된다. 둘째, 모국어와 외국어를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셋째,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모국어를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 넷째, 영어를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많지만 통역, 번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말로 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영어를 모국어로 삼기 이전에 현실적 방안으로 영어를 우리말과 함께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모국어 선택권은 후손들에게 주어야 한다. 채희락(2000 : 168-72)은 이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영어 공용어화와는 관련이 없는 논점임을 보여 주고 있다.

위에서 든 문제점들만 잘 인식하면 영어 공용어론은 이론적 근거도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생각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으며 소기의 목적도 이룰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장은 공용어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며 그 동기도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전제와 개별 논점에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영어 공용어론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영어 공용어화가 우리 국민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가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우리의 이제까지 논의가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영어 공용어화와 모국어화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크게 보아, 비용의 문제,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문제와 민족 정체성 상실의 문제이다(채희락 2000 : 172-75). 비용의 문제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만약 영어가 공용어로 된다면 한국어 사용 계층과 영어 사용 계층간의 갈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sup>8)</sup> 영어를 잘하는 계층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배 계층이 될 것이며 영어를 잘 못하는 계층은 자연히 소외 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언어 문제로 인한 사회 혼란상은 영어와 모국어를 모두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인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들 나라에서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복거일(2000)은 영어를 공용어로 함으로써 영어 교육 기회의 평등에 이바지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공용어화로 인해 영어 교육의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어가 공용어가 되면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 자녀들은 모두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고 여유가 없는 집 아이들은 영어 배우기에 열악한 환경인 이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공용어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영어가 성공적으로 공용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결국 영어가 우리의 모국어로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주로 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 외의 중요 사항을 놓치고 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영어가 모국어가 되고 한국어가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복거일(2000)은 우리 전통과 문화의 보존에 전혀 해

8) 물론 이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식민시대에서처럼 장기간 우리말은 못쓰게 하고 영어만 쓰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우리말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및 정신이 담겨 있는 그릇이며 정신적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김영명 2000). 이런 의미에서 영어 공용어화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의 문제이다(박병수 2001 : 32).

### 3. 영어 공용어화와 경제성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 즉 “경제성”이다.<sup>9)</sup>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바로 이 경제성의 논리이다. 즉,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해 드는 비용에 비해 그 대가로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절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손익계산서를 뽑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채택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느 한 언어만 사용하더라도 불편 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병수 2000, 2001 : 22). 즉, 모든 국민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고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엄청난 노력과 시간 및 그에 따르는 비용이 들게 된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영어 화자가 언어적 불편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바뀌더라도 한국어만으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영어 공용어화

9) 김영명(2001 : 69)은 영어 공용론자들이 효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기 위한 비용과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영어가 공용어로 되었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제적 차이도 계산되어야 한다.

자체가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어를 모르는 영어 화자를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을 영어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는 한국어판과 영어판이 나와야 하며, 교사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든지 한국어를 쓰는 교사와 영어를 쓰는 교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행정 부서, 법원, 국회 등 관공서의 모든 문서가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업무 또한 한국어와 영어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도 한국어판과 영어판이 나와야 하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도 두 언어로 실시되어야 한다. 문어 자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국어로 된 것을 사용하든지 영어로 된 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어의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김세중 2001 : 15-). 예를 들어, 공공행사 같은 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모든 참여자가 한국어와 영어로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든지 옆에 동시 통역자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아예 모든 행사가 한국어 행사와 영어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행사가 얼마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영어 공용어화를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가령, 고등학교 교과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데에 들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한 학년의 한 학기 분 교과서를 15종으로 잡고 각 교과서가 200쪽 분량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전체가 3,000쪽이 되는데, 번역비가 쪽 당 50,000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1-3학년 전체 교과서의 1년 번역비로 9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 (1억 5천만 원 x 3학년 x 2학기).

그리고 모든 교과목의 교재가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종류의 교재가 있느냐에 따라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각 교재 당 5종류가 있다면 45억 원이 된다. 그런데 교재 이외의 보충 자료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교재 관련 번역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돈이 들지는 쉽

게 추정을 할 수가 없다. 교재나 보충 교재의 번역비는 국가나 출판사가 담당해야 할 비용이지만, 교재 이외에 각 개별 학교나 관할 관공서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가령, 영어 화자 교사를 과목당 1명씩 15명만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만 학교 당 1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4억 5천만 원은 된다 (15명 x 연봉 3,000만 원). 그런데 이 인건비만으로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기관의 전체 수를 감안하면 아마도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비용도 전체 대학에서 필요로 할 비용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이처럼 영어로 교육하기 위해 들 비용의 일부인 번역비만 생각하더라도 계산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교육 부문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로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각종 행정 부서와 법원, 국회 등 관공서에서 들 비용과, 신문과 잡지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영어로 운영하기 위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영어 공용화를 위한 비용은 아마 지금의 국가 전체 예산보다 더 들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영어 공용어론자들은 위의 비용 산출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실제로 모든 학교의 모든 학년에 영어 모국어 화자가 입학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어 화자가 없는 학교가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수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했을 때의 맹점이며 영어 공용어론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일단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면 한국어 모국어 화자라도 영어 수업을 듣고 싶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영어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또한 영어 공용어론자들이 바라는 것이다. 영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의 영어 교육 열풍을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소한 일부 과목에 한해서는 영어 화자가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급 학교를 비롯하여 온 나라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거대한 영어 학원처럼 되고

만다.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어떤지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어떤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게 될 것이며, 호기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은 관공서에서 (재미 삼아) 영어로 일처리를 해 보려고 할 것이다.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은 정작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놓치고, 일반인들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국어인 영어는, 아무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그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효용은 어느 정도가 될지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은 당연하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호기심이든 진실한 의도에서든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늘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짜 영어 실력이 늘어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다가 불편하거나 어렵게 되면 바로 한국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배울 때와 “영어 공용어로 지정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의 극복할 수 없는 차이이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영어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훨씬 사용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영어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수준이고 정작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급의 영어 실력을 쉽게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영어를 훌륭하게 잘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동기가 뚜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이 영어를 잘 배운다. 문제는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 한국에서 영어영문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그 후 지금까지 6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영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그만큼 모국어가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더 오래 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한 때 일부 대기업에서 회의를 영어로 진행한다고 해서 화재거리가 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요즈음은 왜 잠잠한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바라던 영어 실력 향상의 효과는 미미한데, 회의의 본래 목적인 문제 해결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부가적 효과를 노리다가 본래의 목적을 망쳐 버리는 결과가 된 것이다.

영어 공용어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용어화 자체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가 공용어로 되면 번역이나 통역 관련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하므로 거대한 “영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우수 인력이 영어를 전공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사람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했는데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경제적인 효율성에서조차 영어 공용어화는 전혀 투자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sup>10)</sup> 더욱 중요한 사실

10) 조동일(2001 : 44)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일은 남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일을 따라가는 것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하는 것을 개발하고 보급

은 고유어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만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박병수 2001 : 24-5). 이 논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심각하게 희생시키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11)

#### 4. 결론 : 현실적 대안

영어 공용어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의 영어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 경쟁력도 크게 강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어가 공용어로 되더라도 영어 실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함으로써 이루려고 했던 영어 사용능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채희락 2000 6절). 근본적으로는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도록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히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우선 영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어 교육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기계번역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 공용화를 위해 들 비용의 절반 또는 그 절반만 영어 교육과 기계번역에 투자하면 50년 이내에 더 이상 영어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과 기계번역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세계어가 되더라도

---

하는 것이 더욱 실용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11)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영어 공용어화가 경제 발전에조차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놓으면 그 때는 또 그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해야 하느니 모국어를 바꾸어야 하느니 하는 논쟁에 다시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키워 가야 한다.

영어 교육을 효율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이들을 잘 비교하고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아 낼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영어 교육을 위해 드는 노력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사항 중의 하나는 영어 교육 대상자의 수를 줄이고 그 대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에서 처음부터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영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진학과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입시에서도 영어는 선택과목이 되어야 한다. 학과나 학문 분야에 따라 영어가 필수적이지 않은 곳도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나 부서별로 영어가 필요한 곳도 있으며 필요 없는 곳도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여 지금의 반 정도의 사람들만 영어를 공부하고 나머지 받은 영어 공부를 위해 쏟을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수학이나 과학 또는 다른 학문 분야를 위해 투자하면 국가적 경쟁력은 그만큼 더 강화될 것이다. 입시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수학이나 과학을 잘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영어를 잘 해서 얻는 이익에 못지 않게 되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영어 공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세울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영자 신문을 발행한 다든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울 수도 있다. 물론 기존의 시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신문이나 방송 프로그램은 영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야 하며 내



용은 교양 중심이 되게 해 다른 매체와 차별화해야 한다. 이렇게 공교육과 공중과 교육을 강화하면 영어 교육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비용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자.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영어 구사력도 좋아야 하겠지만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 우선 외국의 다양한 문물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물을 외국인들에게 잘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학 등을 통하여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것을 외국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 안내서나 상품 설명서 등 홍보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국내 유명 관광지를 가더라도 외국인을 위한 영문 안내서조차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관공서의 문서를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일에 비해 너무나 간단하고 적은 경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관광 수입 증대 등 그 효과는 훨씬 크리라고 생각한다.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국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국제 전문가란 영어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협상능력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고종석(1999), *감염된 언어: 국어의 변두리를 담은 몇 개의 풍경화*, 개마고원.  
 김경일(2001), *나는 오랑캐가 그림다*. 바다출판사.  
 김세중(2001), “공용어의 개념과 영어 공용어화 논쟁”,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연구원.  
 김영명(2000), *나는 고발한다*, 한겨레신문사.

- 김영명(2001), “영어 공용어론의 정치적 의미”,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연구원.
- 박병수(2000), “영어의 제2 공용어화의 문제점”, 한글새소식 제332호(4월).
- 박병수(2001), “언어학에서 본 영어 공용화: 언어 생태학적 시각”,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연구원.
- 복거일(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 지성사.
- 복거일(2000), “소위 민족주의자들여! 당신네 자식이 선택하게 하라”, 신동아 3월, 동아일보사.
- 이석호(2000), “제국주의 시절의 영어정책과 영어 공용화에 부치는 몇 가지 단상들”, 실천문학 59, 실천문학사.
- 정대현(2001), “영어 공용론자의 언어관과 문화”,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연구원.
- 정시호(2000), “영어 찬미자들에게 엄중 경고함!”, 신동아 4월, 동아일보사.
- 조동일(2001),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 -민족문화가 경쟁력이다-, 나남출판.
- 조동일(2001), “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어 공용어화”,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연구원.
- 채희락(2000), “영어 공용화/모국어화의 환상과 그 대안”, 실천문학 59, 실천문학사.
- 채희락(2001), “영어 공용화론 비판의 허와 실”, 안과밖 10, 영미문학연구회.
- 한화성(2000),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 책세상.